아이 엠 노-바디

(막12:18-27)

18.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19.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0.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21.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22.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23.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2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25.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26.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아이 엠 노-바디'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아이 엠 노-바디'
여러분 '마이 네임 이즈 노바디'라고 하는 영화제 목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온 서부영화의 제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 네임 이즈 노바디'라고 하는 말이 본래는, 고대 그리스의 작가였던 호머의 '오디세이'라고 하는 서사시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디세이의 주인공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제 고향인 이타카로 귀환을 할 때에, 무려 10년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10년 동안 온~갖 끊이지 않는 모험을 하게 됩니다.
모험을 하는 길이 곧 귀환길이 돼버립니다.

이 모험을 하는 중에, 키클록스 족속이 살고 있는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키클록스라고 하는 자들은 눈이 하나에요, 외눈박이 거인들이 사는 섬입니다.
그 족속을 키클록스라고 그러는데, 이 섬에 도달했다가 거기에서 폴리페모스라고 하는 거인에게 이 오디세우스 일행 12명이 붙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 폴리페모스라고 하는 이 괴물 몬스터가 끼니때마다 오디세우스 일행 12명 중에서 한 명씩을 잡아먹습니다.
그래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오디세우스가 갖고 있던 포도주를 이 폴리페모스에게 먹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어서 기분이 좋아진 이 외눈박이의 괴물이 오디세우스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이때 오디세우스가 자기 이름을 '우푸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헬라어 '우푸스'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바로 이게 '노바디'입니다.
'What's your name?' 폴리페모스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마이 네임 이즈 노바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에요.

그러고선 잠이 들었는데, 이 오디세우스가 도끼자루 같은 나무 자루를 뾰족하게 깎아 가지고 불에다 달구어서, 잠자고 있는 폴리페모스의 외눈을 찔러 버립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난 이 폴리페모스가 '우푸스~ 우푸스~' 그러니까 '노바디~ 노바디~'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막 돌을 집어 던지고 그러는데, 이 비명 소리를 듣고 옆에 동료들, 외눈박이 거인들이 이를 도와주려고, 누가 그랬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폴리페모스가 말합니다. '노바디' '노바디가 그랬다' 'Nobody did'
영어로 'Nobody did' 노바디가 그랬다 'Nobody did'.
'Nobody did'라는 말은, 아무도 안 그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료들이 도우려고 하다가도, 아무리 도우려 해도 누가 그랬느냐? 그 누구를 잡아야

되는데, 자꾸 폴리페모스가 'Nobody 가 did 했다, 노바디가 그랬다' 그래 돕지를 못하는 바람에, 오디세우스 일행이 무사히 도망갈 수 있었다는 이런 얘기가 거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바디' 영어의 'Nobody'.
'No'라는 단어와 'body' 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겁니다.
'Nobody' '아무도 아니다' 이런 뜻이죠?
'Nobody' 그리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영어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No 와 body를 띄어서 하이픈으로 이어서, No-body 이렇게 말하면 좀 의미가 다를 수 있을 것이에요.
No-body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설교제목이 '아이 엠 노-바디'인데 이 '아이 엠 노-바디' 그러면 '나는 아무도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no-body 몸이 아니다, '나는 신체가 아니다'라는 뜻이 될 거에요.
마이 네임 이즈 낫 노-바디 입니다.
나는 이름이 노-바디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 엠 노-바디,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신체가 아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 엠 노-바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리고 소수에 속하는 귀족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독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돈도 많았고 귀족층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극히 현대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바리새인들과 싸울 때 가장 큰 논쟁거리가 뭐였냐 하면 부활이에요.
왜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 논쟁에서 사용할 때 그 논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논리적

무기 중 하나가 뭐였냐 하면 계대결혼의 문제였습니다.

계대결혼이라는 것은 모세 5경에 모세가 정한 율법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형이 아이가 없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첫째 아이를 형의 이름으로 올려 줍니다.
그래서 형의 집안에 대가 끊이지 않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불행하게도 일곱 형제가 다 자식이 없어서, 계대결혼을 이어 내려가다가 죽었습니다.
이거 좀 말이 안 되지요, 이렇게 되은 여자한테 불임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여자와 계속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얘기에요, 어쨌거나.
이렇게 계대결혼 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정하셨는데, 이 계대결혼 법에 따라 일곱 형제가 다 자녀가 없이 죽었으면, 너희가 부활 부활 얘기를 하는데, 부활 때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맞는 얘기냐?
아!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한 논리적인 무기입니다, 부활을 부정해야 되는.
왜냐 하면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세 5경에 정해진 것이니까, 이걸 정해진 것으로 붙박이로 해 둘 때, 부활의 문제가 이 붙박이로 된 계대결혼과 합치가 안 되니까, 강력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리적인 무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 묻습니다.(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다시 말해서, 부활 때는 남자라 여자라 하는 성의 구분이 없어진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영체가 된다는 겁니다.
영의 존재들이 되는 것이고, 또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거 무슨 얘깁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던 몸은 죽었습니다.
노-바디입니다, 바디가 없습니다, 신체가 없어요, 몸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죽은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삭이 노-바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자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에요. 죽었으나 노-바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내가 몸을 떠나 지금이라도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노-바디가 되기를 원한다' 노-바디.
나는 신체가 아니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남자 몸 여자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내가 남자고 내가 여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왜냐 하면, 나는 노-바디 이니까, 나는 몸이 아니니까, 나는 바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남자 몸을 입고 살고 있고 여자 몸을 입고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곧 여자요 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라고 하는 것이 몸과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
그러니까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사실 사두개인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요.
내가 '나'라고 할 때는 이 몸을 같이 포함해서 '나'라고 합니다.
불가분의 관계 안에 있는 혼연일체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마음이든지 정신이든지 영혼이든지 무엇으로 부르던 간에 내 마음과 이 몸이 혼연일체가 되어있는 상태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이라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노-바디라는 얘기에요, 나는 몸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몸 인줄 알고 무의식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나'라는 의식 속에는 내 마음과 몸이 일체로 되어 진 존재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몸의 중독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노-바디 인데, 몸이 아닌데, 몸이 아닌 내가 몸 중독에 걸려 버렸습니다.
중독이라는 게 여러분 뭐지요?
그것을 없이는, 그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알코올중독, 술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 합니다.
마약중독, 마약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박중독, 도박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중독들, 그 중독의 뿌리가 되는 게 바로 몸 중독이라는 거예요, 몸 중독.

아이 엠 노-바디 에요.
그런데 내가 몸을 잊고 있는 채로 '나'인줄 알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자이고 남자인 것은 이 세상에 국한된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남자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 내가 남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국한된 프로그램이에요.
여자 몸을 입고 있다는 것도 내가 여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노-바디입니다, 몸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프로그램이에요.
어제 우리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영사기라고 하는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이 세상의 삶 전체가 다 프로그램이라 그랬어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TV 프로그램처럼 일시적입니다.
예를 들어,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드라마가 방송이 된다 그러면, 15회에서 끝났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15회에서 드라마가 끝났다고 그 드라마 속에 있던 배우가 죽은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내가 남자로서 어떤 여자와 결혼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프로그램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여자도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라는 몸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부활할 거예요.

나도 영으로 부활하고, 그때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느냐? 여자 역할을 한 겁니다, 여자 몸을 입고.
남자 역할을 한 거지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마찬가지에요.
부모 자식 지간에도 그게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 있지만, 무진이라는 내 아들이 있지만, 걔 몸도 죽고 내 몸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냥 영과 영이에요.
아들의 역할을 했고 아빠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I am no-body, 나는 몸이 아니다'라는 것이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육체가 열등한 것이라서 몸을 제어하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면서 속죄를 해가는 그런 의미로서의 몸도 아닙니다.
그러면 몸은 도대체 뭐냐?
몸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몸이 없으면 사람을 못 만나요.
몸으로 돈을 만집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몸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옷을 입습니다, 마찬가지에요.
몸이 있기 때문에 자식도 있는 거예요, 몸이 있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있는 것처럼.
다 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깁니다.
그런데 일평생을 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에만 마음을 다 쓰고 살았다, 그리고 몸이 끝나버렸다면, 내가 일평생 70년 80년 마음 쓰고 살았던 모든 일이 다 몸 위에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다 물거품처럼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I am no-body' 인데 그러면 나는 몸이 아닌 no-body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몸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끌려가서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에 옷자락이 끼여서 빨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 몸의 귀와 눈과 감각으로 느끼고 접하는 것들에 내 마음이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몸이 살아있으면서 만나게 되는 아내, 남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아내는 벽이든지 스크린일 뿐이에요.

어제 우리가 함께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영사기입니다.
영사기가 신경 쓸 것은 영사기가 품고 있는 필름이에요, 필름.
영사기는 벽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스크린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깨끗한 스크린이건 벽이건 상관없어요.
아내를 만나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깨끗한 스크린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필름을 올바르게 받아들인 뒤에는 영사기에서 필름이 돌아갈 때 스크린에 비쳐나가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하게 비쳐진 다음에는 아내는 벽이든지 스크린이에요.
그 아내의 어떠함에 내 마음이 반응해서 아내가 기분이 나쁘다, 좋다,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게 아니라, 아내는 그냥 벽이고 스크린일 뿐입니다.
아내를 향하여 나는 지금 나라고 하는 영사기를 통해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이게 바로 프로그램의 진행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방법이 남편이라는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내라는 스크린에다 쏘는 것이 내 일평생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스크린에다가 아빠라고 하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그냥 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식을 마음으로 붙들어서 그 자식을 어떻게 이끌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붙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나는 노-바디이기 때문에 몸으로 보고 느끼고 몸으로 교통하게 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노-바디, 나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를 향하여 마음이 살아갑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향하여 살아갑니다.
오직 영이신 하나님에게만 신경을 쓰며 삽니다.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몸으로 만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그게 사람이 아닐지라도, 회사에 대해서도,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도 돈 자체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둡니다.
왜냐하면 I am no-body 이니까, 나는 몸이 아니니까 몸으로 만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생각을 돈이라는 스크린에 비출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몸 중독에 빠져 있어요.
이게 바로 원죄에요.
마음이 몸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서 나인 줄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이 몸과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어버린 상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
몸으로 접할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아이 엠 노-바디'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바디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몸을 갖고 있지만 이제 나는 I am no-body,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내 마음은 세상에 대해 죽은 것이니까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천국에 대해서만 살고 있다, 천국만이 내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몸이 살아있는데 누가 사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몸으로 만나는 모든 대상을 향하여

영사기가 영사하듯이 말 되어지고 행동되어지지요.

‘아이 엠 노-바디’입니다, 나는 몸이 아닙니다.
나는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오직 나일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승철이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늘 십자가를 붙잡고 I am no-body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영이신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같이 죽게 됨으로 ‘아이 엠 노-바디’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언제나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